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

김종훈
경상국립대학교 아동가족학과

An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for Parent Counseling Competency of Daycare Center Teachers

Jong-Hoon Kim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 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실행수준 정도를 파악하여 교육요구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어린이집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부모상담역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영유아교사가 인식하는 부모상담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요인에서 현재 자신의 실행 수준보다 중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기관유형에 따른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역량의 교육요구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의 경우는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가, 직장의 경우에는 부모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 민간의 경우에는 부모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교육요구도 우선순위는 5년 미만의 경우에는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 5-10년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교사 부모상담역량과 관련한 교사 교육을 계획할 때 배경변인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내용이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영유아교사들이 부모상담에 있어 영유아의 심리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에 대한 역량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계획 시, 보다 체계적인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ducational needs regarding parental counseling competence among daycare center teachers.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300 teachers in daycare centers.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ceived importance and the current execution level of parental counseling competence by daycare center teachers showed that they perceived all factors as more important than the current level of execution. The priority of educational needs for parental counseling competence among daycare center teachers according to the type of institution, in public, was understanding children, followed by parental counseling theories. In workplaces, the priority was understanding parents and children. In private, the priority was understanding parents and children. Finally, considering the teachers' careers, the priority of educational needs varied. For teachers with less than five years of experience, the top priorities were understanding children, self-reflection, and self-development. Understanding parents was the top priority for those with 5-10 years of experience. For those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the priority needs were understanding children, understanding parental, understanding parental counseling theories, self-reflection and self-development, and parental counseling techniques and strategies.

Keywords : Daycare Center Teachers, Counseling Competency, Borich Needs, The Locus for Focus Model, Competency Needs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8069286)

*Corresponding Author : Jong-hoon Kim(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mail: child@gnu.ac.kr

Received July 27, 2023

Accepted October 6, 2023

Revised August 24, 2023

Published October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기는 인간발달의 시작점이자 중요한 발달 시기로, 이 시기의 부모와 교사는 주 양육자,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신체, 언어, 사회, 정서 등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 오늘날 현대사회는 가족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 취업모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다니는 영유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 보육의 기능이 가정에서 기관으로 이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유아교사는 영유아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영유아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켜,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어린 자녀를 기관에 맡기는 부모의 요구와 기대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교사와 부모는 영유아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영유아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교육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간다. 현재의 부모들은 과거에 비해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도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는다[2]. 하지만 부모들은 부모 역할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더 필요로 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일반적 정보와 더불어 자신의 자녀만을 위한 개인적이고 특수한 정보를 원한다[3]. 교사와 부모는 영유아에 대한 지식을 서로 교환하면서 영유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이는 교사와 부모가 영유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4]. 교사는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부모에게 일반적인 양육 정보와 각 영유아에게 적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는 교사가 부모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모와의 대화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과정이 수반되었을 때 가능하다.

Bronfenbrenner, Morris[5]는 부모와 기관 간에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 관계가 성립이 되었을 때,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보다 안정적인 영유아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 평가 지표에서도 교사는 부모와 다양한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활동과 가정에서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긴밀하게 교환할 것을 요구하며 기관과 가정이 교류하는 것에 대하여 중시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부모가 신뢰와 존중의 상호보완적 연계 관계를 형성하여 영유아 교육과 발달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교사 부모 간 상호협력적인 관계는 영유아가 낯선 환경에서 안정적으

로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하고[6],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촉진하는 등 영유아의 교육기관과 사회,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생활할 확률을 높여 준다[7]

교사와 부모가 신뢰를 바탕으로 영유아에 대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은 교사가 부모를 상담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8]. 영유아교사에게 있어 부모 상담은 사전에 영유아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교사의 부모상담은 부모에게 영유아를 심층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하여, 보다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게 해주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교육기관과 가정과의 일관성 있는 영유아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9].

하지만 실제 영유아교사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사들은 부모와의 관계 중 부모의 성향과 다양한 요구 등에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10].

부모 상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는 영유아가 행동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의 관점 차이나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부모와 교사 간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11]. 또한 부모가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교사가 영유아에 대한 이해나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교사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 부족으로 부모 상담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한다[12]. 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밀접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교사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교사의 부모상담역량의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부모상담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부모상담역량은 연수나 특강과 같은 단기간 교육을 통해 형성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요구도 조사결과를 기초로 영유아교사 부모상담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교사의 경우 부모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실정이며[3], 실제 상담 수행에 대해 상담을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식하기도 한다[13]. 따라서 영유아교사가 현직 교육을 통해 부모상담에 대한 필수 개념이해와 실행 방법론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얻는다면 영유아교육 현장에서 부모상담역량의 발전적 변화와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교사의 부

모상담역량에 대하여 규명하고,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여 영유아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을 직접적으로 수렴하고 도출하는 선행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여[14] 현장교사들이 부모상담역량 중에서 실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에게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부모상담 내용을 파악하여 부모상담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결과적으로 영유아교사의 요구 수준에 맞춘 부모상담역량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역량 교육요구도와 교육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영유아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상담역량 교육요구도 및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에 소재한 국공립, 직장,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반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N	%
Age	20's	80	26.7
	30's	65	21.7
	40's	102	34
	More than 50's	53	17.6
Teaching career	Less than 5 years	96	32
	5-10 years	80	26.7
	10 years and more	124	41.3
Types of child care center	Public	170	56.7
	Workplace daycare	63	21
Age in charge	Private	67	22.3
	Under 2 years	168	56
	3 years	50	16.7
	4 years	34	11.3
	5 years	48	16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 역량모형 및 도구의 초안 개발을 위해 역량의 구조와 항목들을 개념화

하기 위해 문헌연구[15]를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영유아교사 부모상담의 역할, 부모상담 교육 및 훈련, 의사소통 발달, 영유아교사의 역량 등을 주제로 문헌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교사 부모상담역량의 구조와 역량군, 역량요소, 역량지표를 위계로 하는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초안을 보완하기 위해 영유아교사 교육 전문가, 영유아교사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사항은 부모상담역량 모형의 초안을 만들고, 역량요소와 지표를 제작하는데 활용하였다.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역량 모형의 타당화를 위해 전문가(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교수 2인, 박사 연구원 2인, 어린이집 교사 5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기법[16]을 사용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도출 및 수렴하여 집단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용 타당도를 검토받았고 중복되는 문항과 타당도가 낮은 문항, 영유아교사교육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로 제작하였다.

최종적으로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의 역량군(3개), 역량요소(8개), 역량지표(66문항)를 추출하였다(Table 2). 역량군은 이론적 지식, 상담수행, 태도 및 자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량요소는 부모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6문항),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의 이해(5문항), 부모상담 이론에 대한 이해(8문항), 의사소통기술(22문항), 부모상담 기술 및 전략(12문항), 개인 인성 및 태도(7문항), 자기성찰 및 자기계발(3문항), 윤리적 소양(3문항) 8개와 역량지표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해당하는 부모상담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상담 역량 측정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6이었다.

Table 2. Competency factors according to competency clusters in parent counseling

Competency	Factor
Theoretical knowledge	Parental understanding
	Child understanding
	Understanding parent counseling theory
Conducting counseling	Communication skills
	Parent counseling skills & Strategies
Attitudes and Qualities	Personal character & Attitude
	Self-reflection & Self-development
	Ethical literacy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 부모상담역량 모형 및 도구 개발, 개발된 도구 배부 및 회수, 설문지 분석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영유아교사 330명을 대상으로 210부를 직접 기관에 배부하였고, 인터넷 설문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 중 322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2부를 제외한 최종 300부를 연구를 위해 사용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역량의 교육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중요도와 실행도 간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내용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Borich 요구도를 산출하였다. 넷째,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여 요소들의 점수를 계산하여 시각적으로 최우선 순위 군을 결정하였다. 다섯째, 요구도의 상위 문항이면서 The Locus for Focus 모델에서 HH분면(제1사분면)에 위치한 문항으로 중복된 문항을 최우선 순위 문항, 차 순위 분면을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가 큰

2사분면(LH)으로 결정하였다[17].

3. 연구결과

3.1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및 우선순위 분석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수준 차이 및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모상담역량의 8개 역량 모두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하였다. 요구도 순위를 살펴보면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의 이해가 2.67로 가장 높았고, 윤리적 소양 1.58이 가장 낮았다. 상위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The Locus for Focus 모델(Fig. 1)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제1사분면(HH) 역량은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의 이해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역량의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두가지의 우선순위 도출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역량을 살펴보면, 최우선 순위는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의 이해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in importance level and current performance of parent counseling competency and Borich needs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Competency	Importance level	Current performance	Mean difference	t	Borich needs	Ranks
		M(SD)	M(SD)	M(SD)			
1	Parental understanding	4.52(.45)	4.10(.74)	.42(.75)	6.64***	1.91	3
2	Child understanding	4.53(.53)	3.94(.43)	.59(.59)	11.79***	2.67	1
3	Understanding parent counseling theory	4.45(.52)	4.03(.53)	.42(.56)	8.82***	1.88	4
4	Communication skills	4.43(.55)	4.03(.41)	.40(.54)	8.69***	1.77	6
5	Parent counseling skills & Strategies	4.48(.47)	4.07(.57)	.40(.57)	8.45***	1.83	5
6	Personal character & Attitude	4.55(.45)	4.17(.48)	.37(.48)	9.21***	1.72	7
7	Self-reflection & Self-development	4.41(.60)	3.96(.62)	.45(.61)	8.61***	1.98	2
8	Ethical literacy	4.52(.50)	4.17(.56)	.35(.56)	7.35***	1.58	8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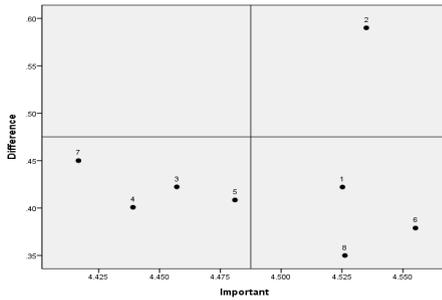


Fig. 1. Locus for Focus Modely - Total

Table 4. Educational needs according to total

Assessment	Sub-factor							
Competency	1	2	3	4	5	6	7	8
Borich needs	3	1	4	6	5	7	2	8
The L/F	HH							
High priority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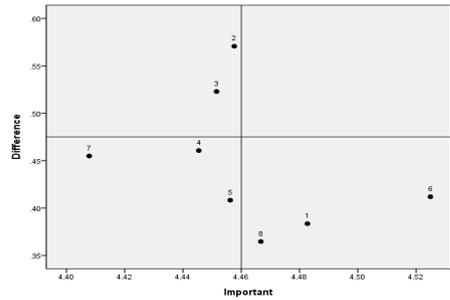
3.2 영유아교사의 배경변인별 부모상담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및 우선순위 분석

3.2.1 기관유형에 따른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역량에 대한 교육 요구도 및 상위 우선순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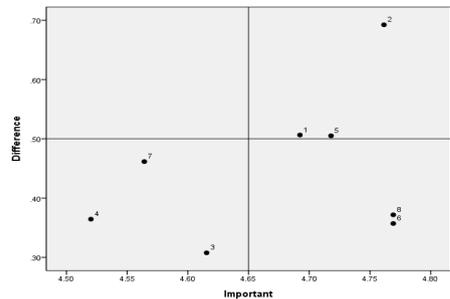
기관유형(국공립, 직장, 민간)에 따른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수준 차이 및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국공립, 직장, 사립의 8개 역량 모두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한 결과, 국공립의 요구도 순위를 살펴보면, 아동의 심리 및 행동특성 이해 2.54로 가장 높았고, 윤리적소양 1.62로 가장 낮았다. 직장은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가 3.29로 가장 높았고, 부모상담이론에 대한 이해 1.42로 가장 낮았다. 민간은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가 2.52로 가장 높았고, 부모상담이론에 대한 이해 .99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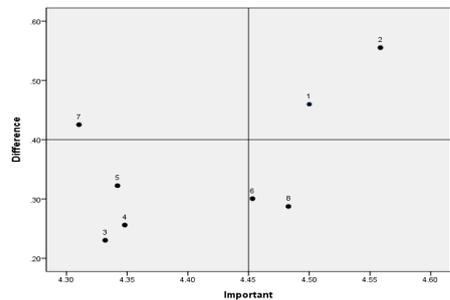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결과(Fig. 2)를 살펴보면, 국공립은 제2사분면(LH) 역량은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와 부모상담이론에 대한 이해로 나타났다. 직장은 제1사분면(HH) 역량은 부모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 부모상담기술 및 전략으로 나타났다. 민간은 제1사분면(HH)역량은 부모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 으로 제2사분면(LH)분면 역량은 자기성찰 및 자기 개발로 나타났다.



Parent counseling competency - Public



Parent counseling competency -Workplace



Parent counseling competency - Private

Fig. 2. The Locus for Focus Model - Types of Institution

최종적으로 공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역량은(Table 6), 국공립의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는 없었고,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 부모상담이론은 차순위로 나타났다. 직장의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로 부모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 부모상담기술 및 전략으로 나타났다. 민간의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로 부모유형과 특성 이해,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로 나타났으며, 차순위로 자기성찰 및 자기 개발로 나타났다.

Table 5. Borich needs analysis to types of institution

Types of institution	Competency	Importance level	Current performance	Mean difference	t	Borich needs	Ranks
		M(SD)	M(SD)	M(SD)			
Public (N=170)	1 Parental understanding	4.48(.44)	4.09(.84)	.38(.87)	4.03***	1.71	7
	2 Child understanding	4.45(.56)	3.88(.48)	.57(.59)	8.83***	2.54	1
	3 Understanding parent counseling theory	4.45(.50)	3.92(.53)	.52(.56)	8.59***	2.32	2
	4 Communication skills	4.44(.59)	3.98(.38)	.46(.59)	7.23***	2.04	3
	5 Parent counseling skills & Strategies	4.45(.46)	4.04(.61)	.40(.63)	5.91***	1.81	6
	6 Personal character & Attitude	4.52(.43)	4.11(.44)	.41(.49)	7.69***	1.86	5
	7 Self-reflection & Self-development	4.40(.55)	3.95(.57)	.45(.64)	6.49***	2.00	4
	8 Ethical literacy	4.46(.45)	4.10(.52)	.36(.56)	6.00***	1.62	8
Workplace (N=63)	1 Parental understanding	4.69(.33)	4.18(.54)	.50(.45)	5.69***	2.37	3
	2 Child understanding	4.76(.36)	4.06(.56)	.69(.59)	5.94***	3.29	1
	3 Understanding parent counseling theory	4.61(.43)	4.30(.45)	.30(.55)	2.80***	1.42	8
	4 Communication skills	4.52(.45)	4.15(.46)	.36(.33)	5.61***	1.64	7
	5 Parent counseling skills & Strategies	4.71(.43)	4.21(.52)	.50(.51)	4.97***	2.38	2
	6 Personal character & Attitude	4.76(.37)	4.41(.52)	.35(.48)	3.74**	1.70	6
	7 Self-reflection & Self-development	4.56(.72)	4.10(.78)	.46(.53)	4.40***	2.10	4
	8 Ethical literacy	4.76(.40)	4.39(.64)	.37(.62)	3.02***	1.77	5
Private (N=67)	1 Parental understanding	4.50(.55)	4.04(.57)	.45(.54)	4.52***	2.06	2
	2 Child understanding	4.55(.54)	4.00(.55)	.55(.59)	5.05***	2.53	1
	3 Understanding parent counseling theory	4.33(.61)	4.10(.48)	.23(.53)	2.31*	.99	8
	4 Communication skills	4.34(.49)	4.09(.42)	.25(.55)	2.48*	1.11	7
	5 Parent counseling skills & Strategies	4.34(.50)	4.01(.47)	.32(.38)	4.52***	1.39	4
	6 Personal character & Attitude	4.45(.54)	4.15(.52)	.30(.47)	3.43**	1.33	5
	7 Self-reflection & Self-development	4.31(.62)	3.88(.58)	.42(.62)	3.67**	1.83	3
	8 Ethical literacy	4.48(.66)	4.19(.57)	.28(.52)	2.94**	1.28	6

*p<.05, **p<.01, ***p<.001

3.2.2 경력에 따른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및 상위 우선순위 분석

Table 7과 같이 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에서 8개 역량 모두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한 결과, 5년 미만의 요구도 순위를 살펴보면, 아동의 심리 및 행동특성 이해 3.13로 가장 높았고, 개인 인성 및 태도 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5-10년은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가 2.69로 가장 높았고, 윤리적 소양 1.61로 가장 낮았다. 10년 이상은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가 2.25로 가장 높았고, 윤리적 소양

1.29로 가장 낮았다.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결과(Table 8)를 살펴 보면, 5년 미만의 경우 제1사분면(HH) 역량은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 제2사분면(LH) 역량은 자기성찰 및 자기개발로 나타났다. 5-10년 미만의 경우 제1사분면(HH) 역량은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로 나타났다. 10년 이상의 경우 제1사분면(HH)에 위치한 역량은 부모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 부모상담이론에 대한 이해로 제2사분면(LH) 역량은 부모상담기술 및 전략, 자기성찰 및 자기개발로 나타났다.

Table 6. Educational needs according to types of Institution

Assessment	Sub-factor								
	Competency	1	2	3	4	5	6	7	8
Public (N=170)	Borich needs	7	1	2	3	6	5	4	8
	The L/F	LH		LH					
	High priority	2		2					
Workpla ce (N=63)	Competency	1	2	3	4	5	6	7	8
	Borich needs	3	1	8	7	2	6	4	5
	The L/F	HH	HH	HH					
Private (N=67)	Competency	1	2	3	4	5	6	7	8
	Borich needs	2	1	8	7	4	5	3	6
	The L/F	HH	HH	LH					
	High priority	1	1			2			

최종적으로 공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역량을 살펴보면(Fig. 3), 5년 미만의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는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로 나타났고, 차순위로 자기성찰 및 자기개발로 나타났다. 5-10년 미만은 최우선 순위로 부모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로 나타났다. 10년 이상은 최우선 순위로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 부모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 부모상담이론에 대한 이해로 나타났으며, 차순위로 자기성찰 및 자기개발, 부모상담기술 및 전략으로 나타났다.

Table 7. Borich needs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to teaching career

Types of institution	Competency	Importance level	Current performance	Mean difference	t	Borich needs	Ranks
		M(SD)	M(SD)	M(SD)			
Less than 5 years (N=96)	1 Parental understanding	4.52(.45)	4.13(1.12)	.38(1.10)	2.44*	1.75	7
	2 Child understanding	4.56(.51)	3.88(.65)	.68(.66)	7.19***	3.13	1
	3 Understanding parent counseling theory	4.43(.52)	3.97(.64)	.46(.62)	5.07***	2.04	4
	4 Communication skills	4.46(.56)	4.00(.49)	.46(.57)	5.55***	2.05	3
	5 Parent counseling skills & Strategies	4.49(.46)	4.04(.78)	.44(.78)	3.98***	2.01	5
	6 Personal character & Attitude	4.60(.42)	4.22(.57)	.37(.50)	5.13***	1.71	8
	7 Self-reflection & Self-development	4.49(.59)	3.94(.71)	.54(.62)	6.12***	2.46	2
	8 Ethical literacy	4.61(.47)	4.20(.62)	.40(.58)	4.89***	1.88	6
6~10 years (N=80)	1 Parental understanding	4.53(.44)	4.07(.42)	.46(.52)	5.50***	2.10	2
	2 Child understanding	4.52(.55)	3.92(.40)	.59(.60)	6.09***	2.69	1
	3 Understanding parent counseling theory	4.45(.51)	4.02(.45)	.42(.59)	4.49***	1.89	4
	4 Communication skills	4.44(.46)	4.07(.34)	.36(.41)	5.52***	1.63	7
	5 Parent counseling skills & Strategies	4.51(.46)	4.12(.38)	.39(.45)	5.38***	1.78	5
	6 Personal character & Attitude	4.54(.43)	4.11(.37)	.42(.49)	5.37***	1.94	3
	7 Self-reflection & Self-development	4.40(.51)	4.01(.50)	.38(.60)	3.94***	1.69	6
	8 Ethical literacy	4.49(.47)	4.13(.43)	.35(.56)	3.93***	1.61	8
10 years and more (N=124)	1 Parental understanding	4.52(.48)	4.10(.46)	.42(.45)	6.74***	1.90	2
	2 Child understanding	4.51(.54)	4.01(.45)	.50(.50)	7.21***	2.25	1
	3 Understanding parent counseling theory	4.48(.53)	4.09(.46)	.38(.48)	5.71***	1.72	4
	4 Communication skills	4.41(.60)	4.04(.38)	.37(.60)	4.49***	1.64	6
	5 Parent counseling skills & Strategies	4.44(.50)	4.06(.45)	.38(.41)	6.72***	1.69	5
	6 Personal character & Attitude	4.52(.50)	4.17(.47)	.34(.47)	5.39***	1.57	7
	7 Self-reflection & Self-development	4.35(.67)	3.94(.61)	.40(.62)	4.78***	1.78	3
	8 Ethical literacy	4.47(.55)	4.18(.60)	.28(.54)	3.85***	1.29	8

*p<.05, ***p<.001

Table 8. Educational needs according to teachers' career

	Assessment		Sub-factor					
	Competency	Borich needs	The L/F	HH	HH	LH	LH	
Less than 5 years (N=96)	Competency	1 2 3 4 5 6 7 8						
	Borich needs	7 1 4 3 5 8 2 6						
	The L/F	HH					LH	
	High priority	1						2
6~10 years (N=80)	Competency	1 2 3 4 5 6 7 8						
	Borich needs	2 1 4 7 6 3 6 8						
	The L/F	HH						
	High priority	1						
10 years and more (N=124)	Competency	1 2 3 4 5 6 7 8						
	Borich needs	2 1 4 6 5 7 3 8						
	The L/F	HH HH HH LH LH						
	High priority	1 1 1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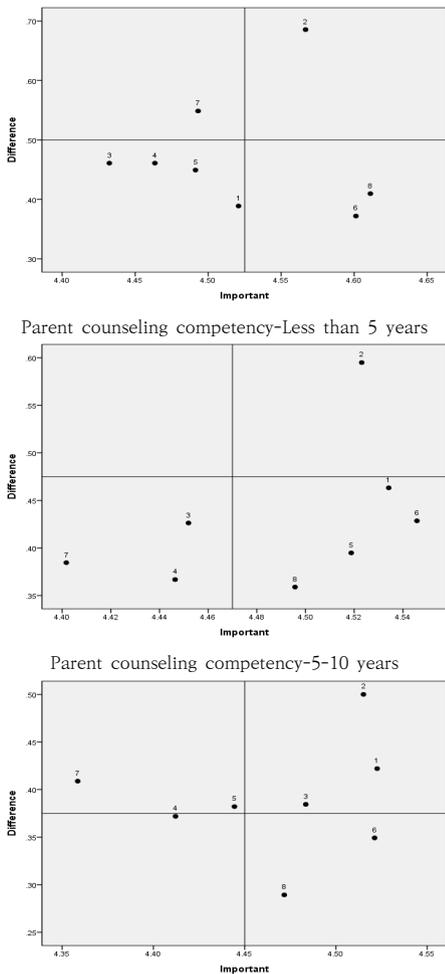


Fig. 3. The Locus for Focus Model - Teachers' career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부모상담역량에 대한 교육요구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가 인식하는 부모상담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현재 실행하는 수준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영유아교사들이 부모와의 상담이 빈번해지고, 중요해짐에 따라 부모상담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실제 자신의 부모상담역량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상담역량 함양 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한 우선순위 도출 결과,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의 이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유아교사가 부모상담역량 교육내용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특성 및 영역별 발달 수준, 영유아의 문제행동의 원인과 특성,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과 지원 및 해결방안과 관련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과거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 부모의 성향과 다양한 요구 등에 대한 등 부모 특성 및 의사소통 관점[9]에 치우쳐 있던 것에서 벗어나 먼저 영유아의 발달영역에 관한 내용과 문제행동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부모상담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 하겠다.

NAEYC에서는 정기적으로 기관과 가정이 양방향 의사소통을 하도록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상호협력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18], '부모-교사 상호작용'이라는 항목을 기관과 부모 간 협력적 관계를 위한 평가 준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 평가 지표[19]에서도 부모와 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긴밀하게 의사소통하여 영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에서의 활동과 가정에서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을 요구하며 기관과 가정이 교류하는 것에 대하여 중시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인 최우선 문항을 반영하여 영유아교사가 부모와의 상담에 앞서 영유아의 관찰 및 평가를 통하여 영유아의 발달과 문제행동 등에 대한 각각 개별 영유아의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된다면 부모상담 시 교사-부모 간 의견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관유형에 따른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 역량의

요구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의 경우는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 부모상담이론 순위로 나타났고, 직장의 경우에는 부모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 부모상담기술 및 전략으로 나타났다. 민간의 경우에는 부모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로 나타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인 국공립 어린이집에 반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부모들이 같은 소속의 기관과 직장에 근무하면서 영유아들을 입소시키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부모와 대면할 기회가 빈번한 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은 부모에 대한 특성과 이해가 상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육수요자 요구에 민감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부모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특성과 이해가 상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내담자인 부모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는 상담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가치관과 기대, 다양한 문화적 배경 등을 감안한 상담전략 및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기관편락을 반영하여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경력에 대한 교육요구도 우선순위는 5년 미만의 경우에는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 5-10년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 부모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 부모상담이론에 대한 이해가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다.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의 경우, 영유아들을 교사로서 접해본 경험이 적다보니 연령별 영유아들에 대한 발달 특성과 문제행동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과 교사로서 성숙과 자신을 직업 적성 및 전문성 확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5-10년 미만 교사의 경우에는 관심이 영유아 지도와 교육에서 보다 확장되어 부모의 특성에 따른 요구에 잘 대처하기 위한 부모에 대한 이해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10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의 경우에는 저, 중경력 교사들에게서 나타난 아동의 심리 및 행동 특성 이해, 부모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에 더해, 부모상담이론까지 세 가지 항목이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이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기 때문에 [20] 영유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긍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의 특성에 따라 접근 및 상담 방법 등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교사 부모상담역량과 관련한 교사 교육을 계획할 때 경력별로 차별화된 교육내용이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 추후 연구에는 지역을 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역량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으나, 추후에는 교사의 부모상담역량 증진이 부모의 기관 만족도나 교사의 직업 만족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영유아교사의 부모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계획 시 보다 체계적인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Gelfer, J. I. "Teacher-parent partnerships: Enhancing communications". *Childhood education*, Vol.67, No.3, pp. 164-167, 1991
DOI: <https://doi.org/10.1080/00094056.1991.10521602>
- [2] O. K. Jung, O.J. Koh, & K. Kim, "Big Data Analysis of Child-rearing Concerns of Parents with Infants posted on Online Parenting Communities: A Deep Learning Approach",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6, No.5, pp. 1021-1043, 2020
DOI: <https://doi.org/10.24159/joec.2020.26.5.1021>
- [3] T. T. Kim, & H. S. Cho, "The Need and Percep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ors about Parent Counseling Education, Children Counseling Education and Suppor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4, No.5, pp. 417-442, 2010
- [4] Epstein, J. L.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Preparing educators and improving schools*. Routledge, 2019
- [5]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In R. M. Lerner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6th ed., pp. 793-828). New York, NY: Wiley, 2006
- [6] Cappella, E., Aber, J. L., & Kim, H. Y., *Teaching beyond achievement tests: Perspectives from developmental and educational science*.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pp. 249-347). Washington, DC: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2016
- [7] Greenberg, M. T., Domitrovich, C., & Bumbarger, B., "The prevention of mental disorders in

- school-aged-children: Current state of the field”, *Prevention & Treatment*, Vol.4, No.1, 1a, 2001
DOI: <https://doi.org/10.1037/1522-3736.4.1.41a>
- [8] Cowie, H., & Pecherek, A., *Counselling: Approaches and issues in education*. Routledge, 2017
- [9] Pianta, R. C., La Paro, K. M., & Hamre, B. K., *Classroom Assessment Scoring System™: Manual K-3*. Paul H Brookes Publishing, 2008
- [10] B. Y. Kim, & H. J. Kim, “Kindergarten Teacher’s Difficulti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 and Parent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9, No.6, pp.73-106, 2013
DOI: <https://doi.org/10.14698/jkce.2013.9.6.073>
- [11] J. Smith, “Teachers’ perspectives on communication and parent engage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s for migrant farmworker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Vol.18, No.2, 115-129, 2020
DOI: <https://doi.org/10.1177/1476718X19898712>
- [12] J. H. Bae, Y. Y. Lee, & Y K. Cho,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s of parent-teacher conferences regarding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3, No.5 pp. 89-114, 2013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3.33.5.004>
- [13] E. Seo, & S. Hong, “A Study on the Awareness on Parent Counseling and Needs for Education in Kindergarten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0, No.1, pp. 353-374, 2016
- [14] S. Joo, “A study of on the Competency Model for Counseling Superviso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3, No.4, pp. 337-362, 2023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3.23.4.337>
- [15] J. H. Kim, “A study of on the Competency Model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Proceedings of the Spring Conference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May 25th to 27th, Jeju National University, 2023.
- [16] Rowe, G., & Wright, G., *Expert opinions in forecasting: the role of the Delphi technique*. Principles of forecasting: A handbook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Springer, 2001, pp.125-144
- [17] D. Y. Cho, “Exploring how to set priority in need analysis with survey”,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0, No.35, pp.165-187, 2009
- [18] Copple, C., & Bredekamp, S.,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serving children from birth through age 8*.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009
- [19] Y. O. Kim., “Exploring the changes of national level early childhood curriculum and revised Nuri curriculum”,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5, No.2, pp.75-103, 2020
DOI: <https://doi.org/10.20437/KOAECE25-2-04>
- [20] S. A. Ko, *The difficulties and positive aspects that newly appointed and experienced teachers experienced on making a relationship with parents of childre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 2008

김 중 훈(Jong-Hoon Kim)

[정회원]



- 201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철학박사)
- 2016년 9월 ~ 2017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 2017년 9월 ~ 현재 : 경상국립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심리, 사회정서발달, 데이터분석